

다구를 찾아서

15 자사호



한잔의 차에 동군을 맞이하네

집다법(點茶法)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차거품을 감상하기 좋은 찻잔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컸다. 한편 포다법(泡茶法)이 유행하자 이번에는 우려낸 차색을 감상하기에 좋은 찻잔과 더불어 찻맛을 우려내는 다관(茶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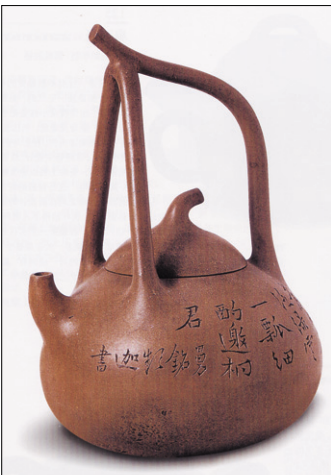
명대(明代) 허차서(許次紱)가 쓴 <다소(茶疏)>에는 찻잔에서 난 차는 뒤고 산골짜기에서 난 차는 찻서 만든다는 것. 차를 뒤을 때에는 나무 손가락을 손에 잡고 한다는 것. 차를 우려낼 때 호흡의 헛수를 측정해 차 우려내는 시간을 가능하는 방법, 다호(茶壺) 재질의 좋고 나쁨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허차서는 전당(錢塘, 지금의 저장성 항주) 태생으로 자는 연명(然明)이다. 안타깝게도 그에 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다만 <다소>의 서문으로 미뤄 만력(萬曆, 1573~1619) 30년(1602) 쯤에 책이 완성됐다고 추측할 뿐이다. 다소(茶疏란 '소통하는 차'라는 뜻이다.

<다소>에 '호(壺)는 다른 냄새가 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은으로 만든 것이 제일 좋고 주석 재질이 그 다음으로 좋다. 그러나 주석이라도 흑연을 섞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물을 맑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도리어 차 맛을 빼앗기 때문이다. 은과 주석 이외에는 자기(磁器)로 만든 것이 좋는데 그중 자요(紫窯), 여요(汝窯), 선덕요(宣德窯), 성화요(成化窯)에서 만든 호가 좋다. 예전 자사호(紫砂壺)는 공촌(供春)이 처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시대인(時大彬)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매우 소중히 여긴다. 자사호는 반드시 소성(燒成) 온도를 잘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는 일이 많다. 소성 온도가 적당하지 않은 자사호는 생 모래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흠뻑 새가 진동해 다기(茶器)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주석으로 만든 호와 비교하면 자사호는 삼 할쯤 등급이 낮다. 자사의 성미가 어렵듯이 스며나고 또 유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항기는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다. (호가 잘 식고 차 맛이 쉽게 변질된다'라며 허차서는 자사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 허차서의 의견대로 자사니료(紫砂泥料)의 질이 좋지 않거나 소성 온도가 낮으면 자사호에서는 흠뻑 새뿐만 아니라 다른 잡내가 나서 차를 우려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자사호를 선택할 때에는 자사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자사호는 열전도율이 높은 반면 보온력이 우수하다. 이는 자사호가 갖는 미세한 기공(氣孔) 때문이다. 기공 속에 숨어있는 공기 입자가 빠르게 열을 전달하면서도 스스로가 열을 함유해 외부 온도를 차단하기 때문에 찻맛이 쉽게 식지 않는다. 그렇기 때

문에 허차서의 자사호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질 낮은 자사호의 사용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에도 자사호의 생산지인 의흥(義興)에서는 질 낮은 자사호는 항아리나 화분을 만들고 상등품의 자사니료로는 호를 만든다.

자사호의 제작 체계를 확립한 시대빈을 이어 청대에는 진홍수(陳鴻壽, 1768~1822)가 등장한다. 호는 만생(曼生)이며 전당 사람이다. 그는 가경(嘉慶, 1796~1820) 6년 과거에 급제했는데 고문제를 잘하고 문장에도 재능이 뛰어났다. 또한 그는 유명한 서화가(書畫家)이자 금석가(金石家)이면서 동시에 자사호 설계자였다. 가경 21년(1816) 의흥 바로 옆 울랑현 지방관이 됐고 당시의 유명한 문인들과 교류했다. 자사호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의흥에서 호를 만드는 장인인 양평년(楊彭年)과 사귀었다. 진만생은 자신의 심오한 문화예술 소



표제호(瓢提壺) 높이 18.3cm 구경 6.7cm 청(淸) 양평년(楊彭年)제 진만생명(陳曼生銘) 중국 상해박물관 소장



양과 심미안을 바탕으로 자연현상, 생물의 형태, 오래된 기문(古文) 등을 응용해 새로운 자사호를 설계했다. 이를 흔히 '만생18식'이라 부른다. 그는 양평년 형제와 소이친, 호월정, 장만전 등과 함께 작업했는데 진만생은 설계를 담당하고 자사호 장인은 호를 제작했다.

표제호(瓢提壺)는 양평년이 제작하고 진만생이 명(銘)을 짓고 곡린(郭麟)이 서각(書刻)했다. 표형과 동파제랑형이 결합된 형태다. 양평년과 진만생이 함께 호를 제작해 문인호(文人壺)의 풍조를 크게 일으켰고 자사호와 시서화인(詩書畫印)을 함께 하나가 되게 했다. 호의 몸통에 '煮白石泛綠雲一瓢酌邀桐君曼銘頻迦書(백석을 끓여 녹운이 피니 한잔의 차에 동군을 맞이하네. 만생이 명을 짓고 빈가가 새기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빈가는 곡린의 호(號)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36 송광사 징검다리



송광사 징검다리. 징검다리 위를 스민 한 분이 건너가고 있다. 몇 해 전 이맘 때 찍은 사진이다. 올 봄에도 송광사에 갔었다. 그 때 송광사에서 돌아와 이 사진을 찾았다. 기억을 찾기 위해 사진을 찾았고, 사진은 기억을 찾아주었다. 올 봄에 갔을 때, 징검다리 위에는 다리가 놓여있었다. 더 이상 개울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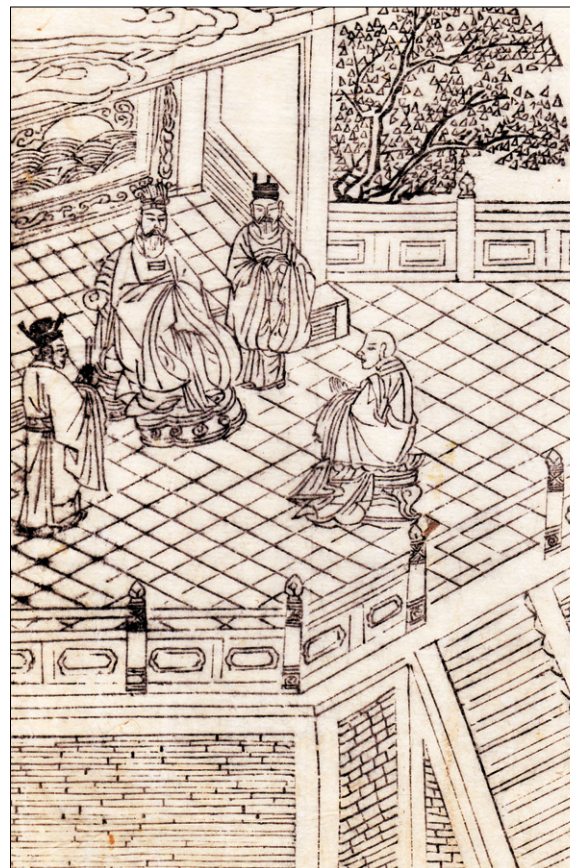
밟으며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었다. 송광사에 갈 때면 꼭 한 번쯤은 건너게 되는 징검다리였다. 초록물이 든 개울은 숲이 되어 흘렀고, 숲 속 같은 개울을 건너오면 작은 폭포 밑으로는 푸른 숲이 쌓였다. 언젠가 푸른 계절에 송광사를 간다면 개울물을 밟으며 들어가고 싶다.

옛 판화의 세계

황제가 삼교에 대해 묻다 (上問三教)

삼화는 송나라 효종황제가 명주 설두산의 보인 선사(普印禪師)를 불러 유불선 삼교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장면을 판각하고 있다. 효종황제는 보인 선사에게 물었다. "삼교의 성인은 본래 동일한 이치인가?" "비유하면 허공과 같아서 처음부터 남북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자는 중용의 도로 교를 마련한 것인가?" "중용이 아니면 무엇으로 세간을 건립하겠습니까? <화엄경>에 이르기를 세상의 형상을 허물지 않으면서 세간을 벗어난 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학자들은 오직 문자만을 보고 공자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 "공자 역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비취 보면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공자의 마음을 몰랐었는데 하물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상영(張尙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불교를 배운 다음에야 유교를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비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소송은 몸이 있음으로 해서 질고의 고통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지혜가 잡목과 같다 하여 불로 화해 몸을 불살라 무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장자가 '형체란 원래 마른 나무와 같이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한 말과 노자가 말한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으니 그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에 몸담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제도를 다해야만 비로소 보리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에 황제는 크게 기뻐하고 그 날로 조서를 내려 경산사에 주석하게 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동양사상의 핵심인 유불선 삼교의 사상을 두루 통섭할 때 유불선 삼교의 각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의 학문의 방법도 제 학문 간의 통섭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질 때 불 때 동양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유불선의 긴장과 조화의 관계를 통해 통섭하는 전통을 오늘에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선태학신(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삼문삼교(上問三教).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각(半角) 27.2×18.0cm.

www.buddhashopping.com NAVER 7년 연속 최우수 브랜드 선정

백중 영가옷

B형-남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 바지), 양말, 봉투
B형-여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 치마), 버선, 봉투

| | |
|-------------|------------------------|
| 종이영가옷A형-남/여 | 할인가 각 1,200원 정가 1,500원 |
| 종이영가옷B형-남/여 | 할인가 각 1,000원 정가 1,300원 |
| 종이영가옷C형-남/여 | 할인가 각 950원 정가 1,200원 |
| 종이영가옷-동남/동녀 |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
| 종이영가옷-수자 | 할인가 각 600원 정가 800원 |
| 영가천도다라니 |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

※ 종이영가옷은 한벌씩 봉투포장되어 있습니다. A형은 B형구성에 대하여 신묘장구부여, 진언부적, 백만관 3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 515-2988, 555-1087, 508-9377~8
휴대폰 : 011-554-2988, 011-879-0889 팩스 : 508-0101 인터넷 : 070-7425-0518

한지 108사경책

| | |
|------------------|--------------|
|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 27호 반야심경(한문) |
| 29호 촛무다라니(한글) | 30호 반야심경(한글) |
| 28호 대불정능엄신주 | |

한지백팔사경 5종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받)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받)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전화로! 02)2004-8216
☎ 053-01-26902 (주) 현대불교신문사